悲愛劇脚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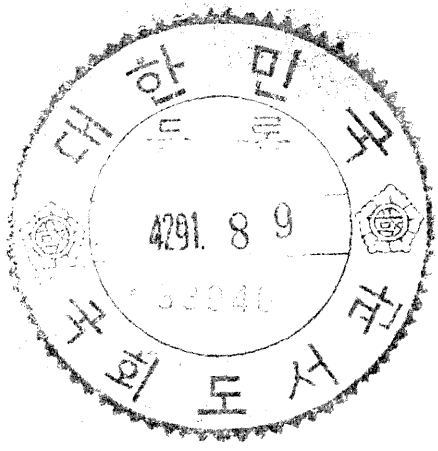
長恨夢

잠한몽

MONO1197021071



京城書籍大發賣元
振替 1256
世昌書館
主申榮三
京城鍾路二丁目十番地


대한민국
4291. 8 9
국회도서관

도서관 장서

811.31

長장 恨한 夢몽

정월 초생의 윷놀이는 우리나라의 풍속이요 또한 실내유희로 자미있는놀이다。 두간이나 넘는 방안에 제패로 나누어 한 편에서는 윷을 놀고 한편에서는 화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나이 삼십이 가까운 남녀도 끼어있지만 대개는 대학생들과 여학생이다。

한편에서는 『윷이야』『모야』 한편에서는 『송학이다』『공산명월이다』하고 흥이나서 떠드는데 그중의 한여학생은 손에 화투장을 펴쥐고 단정히 앉어서 자기 할차례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얼굴은 해창 추월같고 입술은 앵도와같이 붉고 두눈에는 정기가 어리었으며 섬섬옥수는 물속의 은어와같이 곱다。

방안의 모든 사람의 시선은 그 여자에게로 쏠리는데 마진편에 앉은 대학생과 때때로 눈이 서로 마주치면 쌩긋웃고 고개를 숙인다。

이 여학생은 심순애라는 처녀요 마주앉은 대학생은 이수일이라는 대학생이다。 심순애의 숙모되는 이가 정초 놀이를 놀러오라고 청하기에 온것인데 와서보니 여러동무도있고 남학생들도 몇사람 모여있다。 이수일은 어려서 모친을여의고 그아버지와 살아나가다가 그아버지마자 중학을 졸업하기전에 세상을 떠나니 사고무친 갈곳이없게 되였다。 그런데 수일의 아버지의친구되는 심상호라는 사람이 그 정상을 불상히여기어 수일을 자기집에 데려다두고 공부를 시키고 자식같이 사랑한다。 심상호는 심순애의 아버지다。

수일의 위인이 장래성이 있고 공부도 잘하므로 심상호는 그안해와 의론하고 수일이가 사람될줄 하니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고 순애의 배필을삼기로 결정을하였다。 그래서 하루는 수일을 불러가지고

『내 나이 오십이넘고 슬하에 순애 하나뿐이니 너를 극력 공부시키어 사위를 삼겠으니 아무조록 열심으로 공부하여 입신양명하여라』

수일은 너무도 고마워 무어라고 대답할길이 없어 다만

『네 배우겠읍니다』 하였다。

순애는 인물이 일색이요 자태가 고아 가끔 연애편지가 들어오므로 아무조록은 외출을 아니할랴고 하는데 정초를 당하여 그의 아주머니가 놀러오라고 여러번 부탁하므로 혼자가기가 어려워 수일과 동행하여 교동병문안 그 아주머니집을 찾어갔더니 동무들도 있고 남학생 몇명도 있다。 순애는 천성이 단아하여 조용히앉어 화투를 치고있는데 조금있더니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나며 누가 대문간에서 『이리오너라』한다。 주인 마누라가 얼른일어나서 나가드니

『어서 오십시요……이리 들어오십시요』

『들어가도 관계없읍니까? 실례합니다』

수일이 화투장을 접어쥐고 쳐다보니 신사양복에 금테안경에 금시계줄 느린것이 돈 많은 사람같다。

『관계치않습니다。 정초니 같이 노시지요』

순애 아주머니가 그신사를 일동에게 소개한다。

『이 양반은 한양은행 두취되시는 김정순씨의 자제 김중배씨인데 나와 예전부터 친분이 두터운터이니 조곰도 어써 알지말고 자미있게 같이들 노시요』

『여러분이 자미있게 노시는데 파흥이되어 죄송하외다』하고 김중배는 사례하였다。

그중의 여학생 하나이 입을열어

『천만의 말씀이지요』

남학생들은 비위가 상하여 곁눈으로 김중배를 흘겨보느라고 윳가락이 차데로 떨어지고 화투짝이 바뀌어나온다。

순애 아주머니는 말뚝같이 앉은 김중배를보고

『건는방으로 가서 잠간 쉬시고 판이 끌나거든 같이 놀아보시지요』하고 김중배를 데리고 나간다

『김중배가 나간후 순애 옆에 앉었던 경순이가 순애를 꾹 찌르며

『언니 지금 그사람 낀 반지 보았지』

『응 그게 보석반지인 모양야』

그 말에 남학생들은 비위가 상하여

『아—그게 누구야? 건방진놈 같으니』

순애는 지금까지 조그만 금반지 하나를 못 끼여보고 자랐는데 찬란한 보석반지를 보니 마음이 어리둥절하여 화투 차례가 도라와도 멀거니 있다가 옆에서 경순이가

『언니 차례요 어서하오』하는바람에 정신을 차린다。

김중배는 재산가의 아들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하고 돌아와 자기 아버지가 경영하는 한양은행 지점장으로 있는데 늘 원하기를 천하 일색을얻어 백년동락을 해보랴고 널리 구혼하나 마땅한 혼처가 없어 이때까지 독신생활을 하여오는터이요 순애 숙모는 김중배집 이웃에서 살든 사람이라 가끔 만나면 좋은혼처 구해달라는 부탁이있었다。

순애 숙모는 김중배의 배필을 구해주기만 하면 돈도 많이 생길것이요 또 세태도 빌어 여러가지

로 이로운점이 있을것을 생각하고 각처로 엿보다가 순애를 점을찍고 이번 정초를 이용하여 윳놀이를 꾸민것이다。

순애 숙모는 김중배를 데리고 건는방으로 가더니 술을 대접하며

『오늘 모인 여자중에 절대가인이 하나 있지요』

김중배는 입이 버러지며

『네—보든바 처음인데요 외양은 만점인데 심덕이 어떠한지요』

『글쎈 아니라 심덕은 다시 두말할것 없오 내 족하딸이요 고등여학교 마치고 음악학교도 다녔다오』

『네—그러면 다시 두말할것 없오이다』하고 술을 마시더니 양복 주머니에서 백원짜리 지폐 몇장을 꺼내주며

『이것 약소하나 찬용이나 하시요』

순애 숙모는 사양하다가 받아넣고

『약주 고만하실테면 건너가서 윳이나 한케 노시지요』하니 김중배는 고소원이나 불감청이던바라

『관계 없을까요』하고 안방으로 따라 건너갔다。

순애 숙모는 선웃음을 치며

자— 우리 편을갈라가지고 편윳을 한케 놀아봅시다』

『일이 미워가 상하여 홀낏 쳐다보며

『매사는 간수인이라니 주인하자는 대로 하지요』

『편을 어떻게 갈를까 제비를 뽑지』

『아모리나 하시요』

대한민국국회 도서관 장서

제비 뽑은 결과 우연하게도 김중배와 심순애가 한편이 되었다。

김중배는 평생소원하던 미인을 만나고 술잔이나 먹어 마음이 흥분되는데 또 그미인과 한편이 되어 윷을 놀게되니 『윷이야』『모야』 소리를 막지르고 날뛴다。

남학생들은 그 거만하고 반지빠른 태도를 참을 수 없어 윷가락을 함부로던져 김중배의 머리우로도 떨어트리고 손등에도 떨어트리니 중배는 그들의 무례함을 노하나 장난을 빈자하고 덤비는데야 무어라고 말할 수 없어 참고 한판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다。

파흥된 끝에 시간이 열두시가 가까워 오니 모였든 사람이 모두 헤여진다。 순애도 숙모에게 인사하고 목도리를 들고 수일과 같이 나서서 나란이 걸어오는데 거리에는 행인의 발자최가 끊어지고 단 두사람이 숙살거릴뿐이다。 수일은 순애 옆으로 바싹 닥아서며

『그놈 패 건방지든걸 보석반지로 처녀깨나 호리러 다니는 모양야』

『그렇지만 너무들 했어요 윷가락에 머리나 깨지면 어찌해요』

『그까짓 자식 대가리가 깨지면 어때 보석반지만 끼면 제일인가 여자들은 혹하겠지만 우리는 구역이나서 못보겠어』

『나는 싫어요』

『싫은데 왜 그따위놈과 한편이 돼』

『제비 뽑아 한편이된거야 어찌하오』

『그래도 싫어하는것 같지 않던데』

『아이 왜 그런소리를 해요』

『남과 놈이 한수나 뿌리고 몸치장이나 곱게하면 남의집 처녀 유인이나 할놈이지 재산가? 재산가는 제집에서나 재산가지 뉘앞에서 그따위거드름을 부려』

순애는 다시 말이없이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고 빨리 가는데 수일은 순애 옆을 따라가며
『어 춥다! 어 추워』 소리를 몇번이나 해도 순애는 아무말이 없다。 이번에는 순애 귀에다 대고
『어 추워』하고 소리를 꽥 질렀더니 순애는 깔깍 놀라며
『아이 왜 그래요 참 보았네』
『아이 추워 죽겠으니 나를 그속에 좀 넣어주어』
『무슨 속에다』
『그 목도리 속에』
『에그 싫어요』하며 순애는 웃고 몸을 돌리는데 수일은 목도리 한끝을 잡아다려 자기 목에걸고
둘이 바싹 붙어걸어간다。
순애는 웃기를 마지 아니하며
『에그 흉해라 누가 보면 욕하겠네』

× ×

시간은 열한시가 되어가는데 동무의 집에 놀러갔다 온다고 낮에 나간 수일이가 돌아오지 않는다。 안방에는 심상호 부부가 잠이 깊이들어 세상을 모르고 코를 고는데 순애는 수일이 방에 이부자리를 펴놓고 수일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앉았다。
『어데를 가서 이렇게 늦도록 안 돌아올까』하고 하품만 하는데 문을 두드리며 문 열라는 목소리는 틀림없는 수일의 음성이다。 순애는 바삐 나가 문을 여니 수일이 비틀거름을 치며
『누구야 아—순애로군 이것참 고맙소』하더니 손에 싸든것을 순애에게 안기며
『자—이것 받우 선물이야 순애 줄야고 갖이고 온 선물이야』
『어데서 이렇게 술을 잡수셨오 어서 들어갑시다』

수일은 대문 들어갈 때 정신을 바싹 차리고

『아버지 주무시오』

『네 다들 주무셔요』

『나 신좀 벗겨주오 손좀 잡아 끌어당기오』 수일은 취중에 가진 자미를 다본다。

『아 참 취한다 술을 몇잔 먹었더니』

『술 잡숫는 일 없더니 오늘은 웬일이요』

『응 내 언제 술먹나 오늘은 강제로 먹이는데 안 먹을 수 없는 사정이있어 주는대로 먹었더니 퍽 취하는데』

『술이 과하면 몸에 해가 되니 너무 잡숫지 마세요』

『순애는 술 먹는 사람 싫여하는 구려』

『나는 싫어요 평생에 술 안 잡숫던이가 오늘은 웬일이요 백락관씨도 계시고 이칠성씨도 계셨을 터인데』

수일은 순애의 손을 꼭 잡고 한참 말이없다가

『여보 순애 오늘 술은 우리 두사람의 일로 말미아마 먹게 된것이요 우리 둘의 관계는 백락관군 밖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데서 알았는지 동무들이 알고 축배라고 한잔식 먹이는데 사양한들 소용있오』

순애는 웃음을 먹음고 얼굴에 약간 붉은빛을

『오늘 매우 즐거우셨구려』

『즐겁기도 하고 염려도 되』

『염려가 무슨 염려요』

『우리 둘이 결혼을 못하게 될까 하는……』

『새삼스럽게 그런 말씀을 왜해요 벌써 다 결정된 일을』

『그렇지만 요새 장인 장모의 눈치가 좀 다르던데?』

『그게 무슨 말씀이요 정말 술이 취했구려』

『하하하! 하여튼 순애의 마음 하나가 제일이지』

『내 맘은 변할리 없어요』

『산천이 변한들 순애맘야 변할리 없지』

『그럼이요』

수일은 혼몽하야 순애의 무릎을 비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순애는 잠든 수일의 머리를 곱게 들어 벼개에 옮기고 물그럼이 내려다본다。

이럴 일이 있은지 몇일후 순애 숙모가 순애의 집을 찾어와서 순애 어머니 보고 김중배의 재산과 인물을 떠버리고 이곳으로 혼인만 하면 곧 부자가 될터이니 수일을 떼치고 이곳으로 정혼하자고 권고하나 순애 모친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거절하였다。 구미호같은 순애 숙모는 매일 찾어와서 좋은 구변으로 꾀이니 열번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순애 어머니도 귀가 솔깃하였다。

순애는 매일 자기 숙모가 찾어와서 어머니와 속살거리는 것을 엿듣고 눈치는 채였다。 그 사람이 재산가이니까 그리로 시집을 갔으면 호강은 하겠는데 사람은 수일만 못해보인다。 그래서 순애도 은근히 속병이 생겼다。 공연히 번민이 생기고 얼굴꼴이 못되어 간다。

아침에 학교 갔다。 저녁에 돌아오는 수일은 이 일은 전연 몰은다。 하루는 수일이 학교에서 일찍 돌아와보니 집안이 텡 비이고 아무도 없다。 가만히 순애방 앞으로 가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순애 홀로 화로가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으리고 화저가락으로 불을 쑤시며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따금 한숨을 휘 쉬는것이 매우 이상하다。 수일이 기침을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오늘은 일찍 돌아오시는구려』하고 맞는다。

『오늘은 한시간 일렀어』하고 순애의 옆에 앉어 그 얼굴을 노려보니

『에그 왜 그렇게 노려보오』

『왜 무슨 걱정되는 일 있오』

『아—뇨』

『아니면 어째 그리 수심을 띠고 무슨 생각을 그리하오 어데가 아프오』

순애는 고개를 숙이고 옷 고름을 만지작거리다가 아니라고 고개를 흔든다。

『어데가 아프면 의사를 보지 병을 기르면 되겠오』

『병도 아니고 공연히 심사가 불안하고 세상이 귀찮아요』

『염세증인가 보구려 철학자가 되시려나』

『철학자가 다 무어요 일시적 병인게지요』

『내일 아침에는 의사를 가봅시다』

이튿날 아침에 수일은 순애를 데리고 의사를 찾아가 진찰한즉 체증이라고 물약 한 병을 준다。 약먹어 낳을병은 아니고 고민은 날로 더하는데 숙애는 수일을 대하면 양심의 가책이되어 등골에 찬 땀이 흐른다。 재산탐은 나서 중배에게로 가고싶고 보고싶기는 수일이가 보고싶다。 돈을 취하는것이 좋을가? 사랑을 취하는것이 좋을가? 이 두길에서 해매는 순애는 정신의 고통이 날로 심하여 괴로운 심정을 그의 어머니에게 토파하니 그 어머니 생각에 수일이와 멀리 떨어져 있는것이 상책이라 하고 행장을 수습하여 기차를타고 평양으로 행하였다。

이런줄 모르고 학과만 끝나면 집에 돌아와 순애의 얼굴 보는것으로 일을삼는 수일은 오늘도 동무가 놀러가자는 것도 물리치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 보니 순애 모녀가 간곳이 없고 심상호만 안방에 홀로앉어 골패쪽을 젓고있다。 수일은 방문을 열고

『혼자 계십시요』

『오—인제왔니』

『어데 갔읍니까』

『응 의사의 말이 산수 좋은곳으로 요양가는게 좋다 해서 급급히 모녀가 평양으로 갔다』

이말에 수일이는 더욱 수상하여

『그렇게 갑작기 떠나갔어요』

『한 시간이라도 얼른 가는게 좋다해서 불야살야 행장을 차리는구나』

『몇일이나 있다 오겠다고 해요』

『글세 무어 한달 가량은 있을 모양이더라』

한달이란 말에 수일은 실심하여 자기방으로 돌아가 혹시 순애가 편지나 써놓고 간나 하고 책상을 뒤져보았으나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어째 이리 야멸칠가 하루 이틀 될 일이 아닌데 말한마디 없이 도망가듯 할수가 있나

『병이 신병이 아니라 딴 병이 아마 난것같다。 세상에 믿지못할 것은 여자야……아! 그리나 산천이 변한들 순애의 마음이야 변할리가 있나』

수일은 혹이 달코 조바심이 나서 일어났다 누었다 그날밤을 꼭 새웠다。

사흘되던 날 아침에 편지 한장이 왔다。 순애가 수일에게 보낸 엽서 한장이다。 사연은 요양하려 평양에 무사히 득달했다는 말뿐이다。 더욱 분기가 복바쳐 그대로 박박 찢어버렸다。

갈때는 급하여 말없이 떠났 하려니와 편지야 좀 다정하게 쓰지 못할것이 어디있나 네가 병이 단단이 난 모양이로구나 그러나 순애의 마음은 결단코 그러될리가 만무한데? 내가 이 때까지 짝사랑을 하였던가?

수일은 이날 학교에 가서도 이궁리 저궁리하기에 아무 공부도 못하였다。 학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책보를 책상 위에 던지고 멀거니앉어 무슨생각을 하고있다。

심상호는 수일 전부터 수일의 기색이 좋지못한 눈치를 채고 여러가지로 말도 붙여보고 가장 딸애의 병으로 걱정하는 듯이 입맛도 다시고 하더니 담배대를들고 수일의 방에 들어오드니

『신문이나 보려무나 요새는 별 소식이없느냐』하고 수일의 앞에 앉는데 그래도가 다른때와 좀 다르다。

『네—학교에서 보고 왔어요』

『네게 할말이 있다』

『네—무슨 말씀입니까』하고 심상호의 얼굴을 쳐다보니 심상호는 담배를 빽빽 빨고 한참 주저하다가 수염을 한번 쓰담더니

『다른게 아니라 네 신상에 관한 일인데……』하고 또 주저한다。 수일은 무릎을 꿇고 공손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있다。

『너도 올에는 예과를 마치게 되는구나 인제 본과로 들어가 대학을 마추어야 되지 않겠니 네 선친과의 교분으로 보더라도 너를 완전한 인격자를 맨들고저 진심 갈력하는 터이다』

수일은 이말에 감격하여

『감사합니다 사고무친한 저를 이같이 거두어 주시니 은혜 백골난망이올시다』

심상호는 다시 수염을 쓰다드므면서

『그래서 너하고 의논코저 하는것은 다른게 아니라……저—순애 말이나 순애를 시집보내려고 하는것인데……』하고 수일의 얼굴을 살펴본다。수일은 그 말이 청천벽력 같애 별안간 얼굴 빛이 변해진다。그러나 심상호는 이왕 끄낸말이라 눈을 다른데로 돌리며

『여기 대해서는 나도 여러가지로 생각해 보았지만 크게 생각한바 있어 그렇게 하기로 생각한 것이다。그애를 시집보내고 너는 대학을 마친후 외국으로 유학을보내여 많은연구를 시키자는 것이다』

수일은 아무말이 없이 앞이로 입술을 깨물고 있다。눈치 빠른 심상호는 수일의 태도를 보고 다시 눙친다。

『네게 약혼해두고 지금 이런 말하는것은 배신행위라 하겠지만도 나도 너의전정을 위하여 그러하는일이니 아무쪼록 공부를 열심으로하고 순애는 단념하는것이 좋겠다。조곰도 섭섭히 생각지 마라』

수일은 곧『예끼 개같은 놈』하고 싶으나 그의 은혜가 태산같으므로 꾹참고 세상은 이렇구나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면 어떠한일이 있던지 순애는 다른데로 시집을 보내서야 되겠단 말씀이시지요』

『글세 나는 너를 위하여 그리하는 일인데 너는 그뜻을 양해 못하는구나』

심상호는 은혜라는 연장을 들고 수일을 위협하는 것이다。수일은 신세 한탄을 하고 분함을 참고 속맘으로 순애의 심리를 해부하고 있다。순애야 설마 나를 배척하고 갈까? 아무리 부모가 저리하드래도 순애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고만이겠지 대체 뉘집으로 시집을 보내려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나서

『대관절 시집을 보내시면 뉘집으로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글세 아즉 확정은 아니하였다마는 한(은)행 두취 김정수라는 이가 자부를 삼겠다고 통혼을 하기에……』

수일은 한양은행 두취란 말에 『흥 그러면 정초에 윷 놀러왔던 그녀석이로구나』하고 비웃는태도로

『네 바루 그사람입니까 재산가지요……』

이 말에 심상호는 얼굴이 붉어지며

『이일에 대하여는 나도 생각이 많았다。너도 사고무친 외로운 몸이요 순애도 우리 부부 죽어지이면 외로운 신세가 아니냐 늙어가는 우리 부부도 딸이나마 데려가면 살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이런 사람과 인척 관계를 맺으면 너이들의 장래에 큰 도움이 되겠기로 생각 많이한일이다』

수일은 그말이 하도 아니꼬아서

『그렇지 않어도 은혜가 태산 같은데 저의 장래를 위하여 귀여운 따님을 돈과 바꾸신다니 될 말씀입니까 이제부터 저의 걱정은 마십시요』

『네가 불평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사내 자식이 어째 그리 빽빽하여 그만큼 배웠으면 궁량이 터질터인데』

『대관절 순애도 그리 가겠답니까?』

『응 그것도 철 모르는 애가 아니니까 부모 명령 대로 한대지』

『네—에』 수일은 속마음으로 『요년봐라』하다가 그럴리 없지 순애가 그럴리가 있나 반신반의 좀이 쑤시여 못견디겠는데 심상호는 증언부언 지절거린다。수일은 다 듣기싫다는 의미로 이래도 네 저래도 네 할뿐이다。

× ×

심상호 부부는 백만장자 김중배에게로 시집을 보내면 노래에 영화를 불욕심이 치바치어 순애를

달래여 승락을 받고 수일을 떠처려고 여러가지로 궁리중인데 순애는 돈에 욕기는 나지만 수일을 배척하기가 마음이 아파서 고민끝에 병이 된것인데 평양으로 요양 온 목적도 핑계 삼아 와가지고 그곳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한것이다。평양에 도착하자 중배는 평양호텔로 안내하였다。

때는 중추 가절이라 아침 저녁은 찬바람이 소슬하나 낮에는 따뜻한 일광이 사람의 마음을 화창케 한다。 순애 모녀는 평양의 경치를 구경코저 부벽루 근처로 나와 이리저리 거닐며 곤곤이 흐르는 대동강 물을 내려다보더니

『에이 어머니 어쩌면 좋아』하고 순애는 펼석 주저 앉는다。

『재삼스럽게 그게 무슨 소리냐』

『글세 나는 수일이 때문에 그래요 무슨낯으로 다시 본단말이요』

『그건 아버지가 그동안에 다 말씀하셨을 터인데 무슨 걱정이냐』

『내가 남자라면 그러라고 하겠오』

『무슨 저하고 성례를 했단 말이냐 다만 약혼하였다가 파혼하기언정 제가 뉘 덕에 잔뼈가 굵었다고……』

『나는 그래도 그 사람 얼굴을 대할수가 없어요』

『그런걸 왜 승락을했니』

『누가 안가겠다오 가기는 가되 수일씨가 딱해서 말이요』

이때 홀연 구두소리가 나며 나무사이로 양복입은 신사가 단장을 짚고 이쪽을 향하여 온다。자세히 보니 김중배라 순애는 몸을 일어 나무사이로 피하는데 가까이 오더니

『여기계신것을 찾어다녔읍니다 그려』

『얘가 머리가 아프다기에 바람좀 쏘이며 나왔지요』

『네— 지금 여관으로 갔더니 부벽루 나가셨다기에 왔읍니다.』

순애는 부끄러운듯이 나무 사이에 고개를 숙이고 섰는데 중배는 말좀부쳐보려고

『평양이 서울보다 산수가 좋지요』

순애는 얼굴이 붉어지며 『네』하고 겨우 대답만 한다。중배는 다시 순애어머니를 향하여

『따님은 시골 살기를 좋아 않지요 그렇다면 서울도 집이있으니 왔다갔다 하는것도 좋지요』하고

순애를 쳐다본다。순애는 웃음을 먹음고 아무말이 없다。

『순애씨는 아마 여기저기 구경 다니시는것을 좋아하시는 모양인데 결혼하거던 신혼여행을 상해로 합시다』

이말에 순애 어머니는 입이 딱 버려지고 순애도 기쁜 빛이 얼굴에 나타난다。

중배는 순애와 단 둘이 산보하며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나서 순애어머니에게

『다리도 아프신데 여기 앉아계십시요 우리들은 산보나 하고 오겠읍니다』하고 다시 순애를 향하여

『저리 가서 경치나 구경합시다』순애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이 없는데 순애 어머니는 중배의 뜻을 알어 채리고

『부끄럽기는 무엇이 그리 부끄러우냐 나는 다리가 아프니 어서 갔다오너라』하고 권한다。순애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 세사람의 거동을 지금까지 나무 사이에서 엿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사람은 순애와 약혼한 이수일이다。

수일은 심상호에게 파혼 선고를 받은 후로 매사에 뜻이없고 기맥이 축느러져 사지가 호늑호늑한다。그의 가장친한 벗 백락관이 이거동을 보고 무슨 격정이 생겼느냐고 힐문한즉 처음에는 대답

을 아니하다가 하도 간곡히 무르므로 파혼된 사실을 설명하니 백락관은 무엇보다도 순애의 마음하나가 제일이니까 곧 순애에게로가서 그 뜻을 타진하는것이 상책이라 하므로 수일은 곧 그길로 평양을 향하여 온것이다。

평양 호텔을 찾어가니 부벽루 구경갔다。하므로 수일은 부벽루로 오다가 세사람의 행동을 본것이다。수일은 분기 충천하여 세사람 앞으로 뛰나서 김중배를 한번 흘겨보더니 순애 어머니에게 모자를 벗고 인사한다。

순애는 대경실색하여 취구멍을 찾고 순애 어머니는 허둥지둥하며 『저—』『저—』하다가 갑신히 『언제 내려왔나』 한 마디만 한다。

김중배는 전부터 수일의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벌써 누구인줄을 알아채리고 고개를 번쩍 들고 단장을 짚고 거만을 피우고섰다。수일은 곧 한번 내갈기고싶은 생각이 간절했으나 꾹 참고 웃는 얼굴로

『순애의 병은 좀 어떻습니까』

이말에 순애 어머니는 저으기 놀람이 풀여

『여기 온 후로 좀 난것같애 학교는 어찌하고 왔나』

『교사를 수리하는 까닭에 몇일 쉬게됩니다』

순애는 수건을 입에 물고 웃고섰다。

신부 하나에 신랑 둘이 나서니 이장면을 어찌하여야 무사히 넘길는지 순애 어머니는 속이탄다。

여러가지로 궁리하다가 중배를보고

『집에서 손이와서 곧 집으로 돌아가야겠오 미안하오』

김중배는 그뜻을 알아채이고

『그러면 나종에 또 찾아가 뵈옵겠읍니다……순애씨 또 만납시다』

순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다만 고개만 까댁하는데 수일은 눈이 뚫어지게 노려보고섰다가

『바루 보석반지로구려 정초에 왔던……』하니 순애는 고개를 숙이고 말이없다.

순애모는 수일의 옆으로 가까이와서

『여보게 영감께서 아무말씀 아니계시던가』

『네—말씀게셨읍니다』

『그러면 다 알었겠지 고만 여관으로 돌아가지 들

월색은 교교하고 강물은 잔잔한데 솔솔부는 찬바람이 부벽루 난간을 시치고 두 사람의 품속으로 기어든다 수일과 순애는 부벽루에 올라 아무말이 없이 대동강 맑은물속에 잠긴 달만 내려다보더니 수일이 한숨을 휘쉬고

『순애 나는 가슴이 꽉막혀 아무말도 안나오』하니 순애는 고개를 숙이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란 무슨말이요 오늘 이자리의 광경에 남편의 눈에 띄워 용서하란 말이요 다른데로 시집을 가겠으니 용서하란말이요 나는 그용서의 의미를 모르겠오』

『……』

『내가 여기까지 오기는 순애는 맘이 변치 아니하였으리 믿고온것이요 어제 아버지께서 시집보낼 이야기를 하시고 무엇 나를 외국유학을 보낸다나 하고 조리 닿지않는 말씀으로 청을 들어달라고 하십디다。내가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입어왔는데 두분의 말씀이라면 수화중이라도 뛰어들어갈 만큼 은혜를 감격하고 있는터이라 무슨 말씀이던지 청종하나 이일만큼은 청종할수가 없었오』

『용서하세요』

『대관절 이일은 부모가 명령한일이오 순애가 자원한 일이오』

『……』

『만일 부모의 명령이면 나는 법적으로 해결을 짓겠오』

『나는 허락한 일 없어요』

『그러면 너는 내 안해니까 나하고 가자 여필종부라니 어서가자』

『가만히 계세요 내 말씀들으세요』

『말이 무슨말이냐 이 개같은 년아 서방을두고 딴 서방해온 년이 무슨말이냐』

『너무하십니다』

『정조를 깨트린 년에게 무슨말은 못할고』

『언제 내가 훼절했어요』

수일은 참다 못하여 순애의 뺨을갈기고

『이년! 남편있는 계집년이 일언 반사없이 오백여리 달아와서 남의남자와 산보다니는게 훼절이 아니고 무엇이냐』

순애는 뺨을 맞고 울며 달려들며

『살여주세요』

하는것을 홱 뿌리치고 한숨을 휘 쉬며

『내가 네게 말하는것은 오늘뿐이요 때리는것도 오늘뿐이다。 삼월십오일……순애야 잘 기억해 두어라 내년의 금월 금야가되면 일생을두고 이날 이밤을 잊지않겠다。 죽어도 안잊는다。 알아두어라 삼월 십오일 내년의 금월 금야가되면 나의 피눈물로 반듯이 저달을 흐리게 하리라。 순애야

달이 흐리거든 이수일 가 어데서 너를 원망하고 있는줄을 알아라』
하고 뚜벅뚜벅 걸어오니 순애는 목이메여 울며
『나좀 보세요 네 나좀 보세요』
『보와서는 무엇하니 울기는 왜 우니 돈있는 서방 만나 잘살어라 그러나 돈은 내가 없다마는 애정만은 김중배 열이모여도 나하나만 못하리라』
순애는 이말에 예전 정분이 북바쳐 울며 따라가며 『수일씨』 『수일씨』하나 수일은 대답않고 뚜벅 뚜벅 걸어가더니 산모롱이를 지나 그림자조차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다。

× ×

춘풍추우 가는세월 사월이란 세월은 흘렀것만 수일의 소식은 묘연하다。 같이 공부하든 백락관은 가끔 수일을 생각하고 아까운친구 버렸다고 사방으로 수소문하다。 심상호 부부도 가끔 수일이가 어데로 갔을까하는데 풍편에 들은즉 고리대금업자의 사무를본다고 전한다。
백락관도 그 소식을 듣고 착한사람이 계집으로 말미암아 악마가되는구나 하고 걱정이다。 백락관은 대학을 마치고 대구중학교 교유가 되어갔다。 이일은 수일이도 신문에 난것을보고 알았다。
수일이가 착한마음을 귀양보내고 악마와같은 고리대금업자의 수하가된것은 돈으로 인하여 실연된것을 돈으로 갚아보자고 한일이다。 빗받지란 세상에 못할일인데 더욱 고리대금이란 세상 사람에게 욕먹는 장사다。 수일은 도덕 인정 의리는 다 집어치우고 도적갈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을보니 주인이 신임하고 모든일을 수일에게 맡겼다。 주인의일을 극진히 보려니 자연 남에게 인심을 잃고 욕도먹는다。 가끔 빗받으러 갔다가 싸움도하고 어데맞기도 한다。
하루는 빗받으러 갔다가 점심시간이 지나 먹지못하고 돌아오다가 배가 몹시고파 호떡한개 사먹으려고 호떡집으로 들어가랴니까 뒤에서 누가

『이선생』하고 부른다。 나더러 선생이라고 부를사람이 없는데 누구를찾나 하고 돌아다보니 여류대금업자 서은경이란 여자다。

『아 어데를 가십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어데로 가십니까』

『네—시장해서 요기를 할까합니다』

『식당으로 가시지요 호떡집이 뭡니까』

『네 아즉 그런데 갈 절도가 못됩니다』

『어서 이리 오세요』하고 서은경은 수일을 끌고 식당으로 갔다。 은경은 술과 안주를 청구하여 놓고 자꾸 권하며

『이선생 남의일만 보시지 말고 자영을 해보시지요』

『돈이 있어야지요』

『저는 이선생을 맘에 둔지 오래올시다。 어데 정혼한 곳 없거던 저를 저바리지마세요』

『천만의 말씀마시요 나는 정혼한곳도 없고 일생을 독신생활 할 작정입니다。 아주 그 일은 단념하시지요』

『그게 무슨말씀이세요 나를 잡년으로 아시는군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자—시간이 늦었으니 어서 가보아야 하겠읍니다 용서하서요』하고 수일은 일어선다。

은경은 코를 떼고 부끄러워서 다시 기회있든대로 이야기하리라 하고

『그렇게 바쁘시면 실례하겠읍니다 다시 찾아가 뵈옵지요』

『네—』하고 나서서 작별하였다。

하루는 빚 받으러 나섰더니 채무자가 도망한고 간곳이없다。 보증인의 집을 찾아가니 그런 일 없다고 그 도장이 위조라하므로 일이 중대하여 주인에게 고하랴고 집으로 왔더니 주인이 홍만석 집에갔다 하므로 서강 홍만석의 집을 찾아가니 그집 일보는 원히상이나와 맞이며

『여서 오게 올라오게』한다。 수일은 그집이 벅적한것이 무슨 날 같아서 사양하며 주인 최종연이 왔느냐 무른즉 오늘 청하였는데 안왔다 하며

『잠간 조용이 할말이 있으니 이리 오게』하고 후원으로 데리고 간다。 수일은 무슨일인가 하고 쫓아가니 다른일이 아니라 누가 빚을 오백원달란다는 말이다。

이날은 홍만석의 생일이다。 홍만석은 경성의 유수한 재산가라 여러 은행의 중역으로 있는 관계로 김중배와도 친구간이다。 그래서 이날 김중배도 초청을 받고 순애와 동부인하여 왔는데 순애는 잔치 음식을먹고 산보도 할겸 집구경도 하느라고 계집하인을 앞세우고 후원으로 돌아다니다 수일을 마주쳤다。 수일은 여자목소리가 나니까 고개를 숙이고 모른체하고 원히상과 이야기하기에 못보고 순애는 자세히 보았는데 얼굴이 몹시 초췌하여 보인다。 반갑기 측량할수 없으나 옆에 사람이있으므로 모른체하고 지나갔다。 그러나 공연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눈물이 쏟아진다。

『아찌!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안력이 부족해서 바람을 쏘이면 그렇게 눈물이난단다 그양반들이 누구인지 오즉이나 욕했을가 어떤 때는 창피할적이 많아』

『아니야요 늙으이는 이댁 일보는 영감이고 젊으이는 빚노리 하는 최종연이란 사람의 서사에요』

『흥봤을걸? 서울도 최종연이란 이름이 있다。 이근방에 사나?』

『아—뇨 삼청동이래요』

순애는 능청스럽게 둘러대어 왕괴를 면하고 수일의 주소까지 알았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후로

수일이 생각이 간절하여 입맛이없고 잠을 못잔다。

오늘도 수일은 보증인의 도장 위조사건으로 밤에 또 나섰다。 본인의 집으로 가느라고 정동으로 들어서니 난데없는 장한이 나타나며 아자식 하고 등을치는데 수일은 폭 고꾸러졌다。 몽둥이로 빨래하듯 친이기고 도망하였다。 얼마 후에 행순하든 순사가 발견하고 곧 대학병원으로 담아갔다。

이튿날 신문에 고리대금업자의 조난이란 제목으로 수일의 일이 게재하였다。 최종연도 그날 밤에 수일이가 안돌아오는것을 무한 걱정한끝에 신문을보고 깜짝 놀라 병원으로 찾아가보니 전신에 타박상을 입어 삼개월이나 치료받아야 된다고 한다。 여러가지로 위로하고 간호부에게도 극진히 간호해달라고 부탁하고 돌아왔다。

그날 밤 열시쯤되어 최종영의 아들 영식이가 신문을보고 찾아왔다。

『신문을 보고 우리집 일이나 아닌가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은 우리집 일이다마는 내가 봉변한것이 아니라 수일이다』

『그래 몹시 맞지나 아니하였읍니까』

『왜 몹시 다쳐서 입원했다』

『그것 가엾읍니다 그려……아버지 이일이 아버지께 미칠 일입니다。 대금업을 고만두십시요 다른상업을 하시지요』

『별소리를 다하는구나 어느것은 장사 아니냐』

『제발 고만 두십시요 그것 아니하시기로 못살겠읍니까』

영식은 최종연의 외아들이다。 금년에 나이 이십륙세인데 몇해전에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에 문화를 보급식히고저 인천에가서 출판업을 하고있는데 그 아버지의 부정한 일이므로 이전부터 고만두라고 권고하였으나 최종연은 듣지 아니하므로 몇해전에 자기는 따로 나간것이다。 수일이가

사무원 된뒤에도 영식은 년기가 상등하므로 젊은사람이 무엇을 못하여 이런곳에 발을 잠그느냐고 권고한일도 몇번 있다。

× ×

삼월 십오일 날 밤에 대동강변에서 수일을 이별한 순애는 김중배에게로 시집을 갔다。 금의옥식에 가진호강을 하나 돈만으로는 행복이 못되는것을 날이 갈수록 깨닫게 된다。 애정은 김중배 열이 모여도 수일이 하나만 못하리라는말이 사실이다。 화조월석에 수일이 생각뿐이므로 점점 중배가 싫여진다。 만나면 눈쌀을 찌푸리고 화를내니 중배는 더욱 얼려마추고 애지중지한다。

어떤 때는 너무도 냉정하고 쌀쌀하므로 밥상도 메다치고 집에 돌아가지않고 기생집에가서 자는일도 있다。 벌써 두 사람의 사랑은 식었다。

홍만적 생일에 왔다 간후로는 순애의 기색이 더욱 다르고 중배를 몹시 냉대한다。 그래서 중배는 확낌에 서방질한다는 셈으로 옥란이란 기생을 사귀어가지고 매일 침식을 기생집에서 한다。

순애는 수일의 주소를 알았으므로 그를 찾고저 자기 어머니에게로 몸이 몹시아프니 한번 다녀가시라고 편지를 하였다。

순애어머니는 편지를 받아보고 병이 대단한가하여 곧 평양으로와서 모녀 상봉하고

『몸이 어데가 과로우냐』

『괜니 늘 심사가 좋지않고 구미가 없어요』

『애를 서는가 보구나』

『에그 어머니도 애가 있어 되겠소』하고 얼굴을 붉힌다。

『그런데 어째 애가없으니 웬일이냐』

『애가 있으면 큰 원수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나무 집의 자손 나주어야지 애 못나면 소박 맞는다」
「제발 소박이나 마겼으면 좋겠소」
「얘가 미쳤나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 그동안 수일이의 소식들으셨소」
「도모지 몰으지」
「나는 접때 홍만적댁 생일 잔치에가서 만나 보았소」
「흥—그래 무얼하고 있다덴」
「어디 말이나 하여 보았소 자기는 나를 못본모양야 그런데 그집 하인에게 주소도 알고 왔으니 아버지께 말슴하고 다시 찾아다가 집에 두어주시요」
「미친 소리를 다하는구나 오라면 오겠니」
「글세 그리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소」
「어디 아버지께 말슴해 보마」이렇게 이야기하고 순애 어머니는 며칠후에 서울로 올라왔다。

× ×

수일에게 문병오는 사람은 최종연과 서은경의 두 사람뿐이다。서은경은 이 기회에 자기의 목적을 달하랴고 조석으로 와서 간호한다。수일은 은경이 오는것을 달게여기지 않는다。이날도 은경은 아침 일찍이와서 수일의 다친 팔을 주물러주며 가진아양을 다부리는데 수일은 귀찮아서
「어서 가보시요」
「왜 귀찮으세요」하는데 홀연 문이 열리며 간호부가 명함 한장을 갖다주며「이런 양반이 찾아오셨습니다」
수일은 명함을 받아 보니「심상호」라 단박에 얼굴빛이 변하고 몸이 떨리며 눈물이 핑 돈다。간

간호부는

『들어오시랄가요』

『몰라! 이런 사람은 몰으겠소』하고 명함을 던진다。

간호부는 다시 나와 심상호를 보고 『몰으신다합니다』하니 심상호는 기가 막혀

『그럴리가 있나 병이 대단한거로구면 내가 들어가보겠소』 병실로 들어가 침대옆으로 가까이가서

『수일이 내다 내야 나를 몰으겠니』

수일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답이없다。

『수일아 나는 이때껏 너를 잊지안는데 너는 나를 잊는구나 수일이 늙은놈의 대접으로도 머리를 들려무나』

수일은 역시 몰은체하고 대답 없다。 옆에 서있던 서은경이 이광경을보고 두사람 사이에 무슨 깊은 사정이 있는것같애서

『노인 잠간 고정하십시요 저는 이사람의 병 간호하려와 있는 사람일데요 이삼일 전부터 병자가 열이 심하여 때때로 헛소리도 하고 울기도하고 혼도도 한답니다』

『네—그래요 병이 대단하구면……』

『명함 두고 가시면 정신들 때 전하겠읍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수고시럽지만 명함을 전해주시요』

하고 당함을 끄내주고 일어서 나간다。 은경은 전송을하고 들어오니 수일은 별덕일어나 앉으며

『무슨 낯을들고 나를 찾아와』하고 분노가 극도에 달하여 눈알이 불어진다。 은경은 가장 제가 성공한 듯이 앞으로 닥아서며

『그게 누구에요』

『그걸 알아 무엇하오』하고 뎔퍼덕 두러눕는다。

수일의 병은 점점차도가 있으데 최종연은 그동안 도망간 채무자 김길남이란 사람을 찾아가지고 재판을하여 돈을 받고 도장의위조죄로 팔개월징역에 처하게되었다。그래서 칠십이 넘은 길남의 모는 날마다 종연의 집에 찾아와서 『이놈 돈받았으면 고만이지 남의 외아들 왜 징역식히느냐』고 야료를 친다。하로는 바람이 몹시 불고 인적이 고요한데 아모도 오는사람이 없。최종연 부부는 방에 들어앉어 이이얘기 저이얘기하다가 안해 백씨가

『오늘 저녁에는 그마누라 아니올가?』

『글세 바람이 부니까 그 마누라도 오늘은 공일인게지……문걸고 술이나 한잔데워오 얼그니 먹고 잡시다』

백씨 부인은 나가서 대문을 걸고 술을데워 상을 보아가지고 들어와서 남편을따라 권하고 최종연도 안해를 권하여 자미있게 놀다가 두러누었다。시간은 밤 열시가 넘었는데 아즉도 바람은 맹렬하고 인적은 뚝끈였다。최종연 부부는 술취한김에 세상 모르고 잠이 깊이 들었는데 열두시쯤되어 최종연 집은 불이나서 순시간에 전소되고 최종연 부부는 빠도 안남고 재가되었다。

수일은 상처가 거진다 나아 수일후에 퇴원할 예정인데 뜻밖에 이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퇴원하고 나와 곧 영식에게로 전보치고 불탄자리를 살고하여 보니 사람째 모두 재가되고 나머 있는것은 다만 금고 하나뿐이다。수일은 하도 비창하여 눈도록 앉았다 섰다。불탄자리로 왔다 갔다 하는데 뒤에서 누가

『수일씨!』하고 부르기에 돌아다 보니 최영식이라

『빨리 오셨을니다그려』하고 수일의 눈에는 눈물이 돈다。영식도 눈물을 흘리며

「그래 시체도 없어요」

「참 기막힐니다。재 뿐이지 무엇있어요 다만 나문것은 금고 하나 뿐입니다。 병원에 누어서 전연 몰랐구료」

「금고속에는 무엇이 있읍니까?」

「그속에는 증서 장부 등이 들어있지요」

「그것이 함께 탔드라면 좋을걸 그랬읍니다。수일씨도 다 아시지만도 내가 서울 올때마다 고만 두시라고 여쭈어도 듣지 아니하시더니……」하고 느껴운다。수일이도 눈물을 흘렸다。

「수일씨 당신도 이 길을 잘못들으셨으니 이제는 참된길로 돌쳐서시지요」

「네 고마운 말씀이올시다」

「말씀들은즉 당신이 이길로 들어서게 된 깊은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 그 사정을 좀 토파하실 수 없을가요」

「대단히 못난 놈의 짓이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럼 고만두시요 그런데 내가 청할일이 하나있는데 들어주시겠소」

「이때껏 댁의 일보는 사람인데 무슨 일이든지 보아드리지요」

「나는 이재산이 필요없소 이재산은 전부 당신에게 들이니 더럽다 마시고 받아주시고 이제부터는 빗노리마시고 참된 사람으로 돌아가 사회에 유익한사업을 하시기를 청합니다」

수일은 아모 대답이 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뿐인데 두눈에는 눈물이어리고 영식도 눈물이어리었다。

× ×

순애는 그 어머니에게 수일의 일을 부탁하고 날마다 편지오기를 기대리나 일거 무소식이다。하

로는 전보로 독촉하였더니 며칠후에 편지가 왔는데 최종연의 집을 찾아갔더니 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기에 병원으로 심방하였으나 수일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불을 쓰고 보지도 안하드라고 하였다。 편지를 읽고난 순애는 가슴이 아프고 낙심이 된다。 밥도 아니먹고 두려누었는데 김중배는 술이 대취하여 비틀걸음을치며 들어온다。

순애가 두려누어 일어나지 안는것이 괘씸하여

『술은 저렇게 취하시고 또 무슨술이요』

『나는 술이 약야……』

하인이 술상을 보아 올렸다。

『자— 한잔 딸아』

『내가 기생요 갈보요 별꼴을 다 보겠네』하였더니 중배는 화가나서 술상을 들어 순애에게 메닥치고 일어서 옥란의 집으로 갔다。

순애는 신세한탄 수일의 생각을 하고 한참 울다가 화를 풀려고 나와 한결음 두결음 정신없이 걸은것이 부벽루를 당하였다。

때는 유월 염천 십삼일인데 석양의 대동강 낙조는 홍취를 돋우것만도 순애는 슬픔이 북 친다。 오년전에 이곳에서 수일을 이별하던 일이 활동사진같이 눈앞에 나타난다。

『내년의 금월금아 십년후의 금월금야 일생을 두고 나는 오늘밤을 잊지않겠다……돈은 김중배를 당치못해도 애정은 김중배 열사람이 수일이 하나를 못당한다……』

지금 와서는 그말이 옳은것을 절실히 느낀다。

『내가 죽일년이지 그 착한 사람을 배반하고 돈에 눈이어두어 이짓을했구나 수일이가 나를 얼마

나 원망하며 그 원망에 내가 잘될리 만무다。 차라리 저 물에 몸 던져 세상 잊고말겠다』하고 강가에 있는 바위위로 올라가서 울며

『수일씨 나는 당신께 잘못을 이강물에 씻고저 하니 깊은 원한을 푸소서』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랴 하는데

『잠깐만 참으시요 잠깐만』하는 소리가 나더니 낚싯대가 그의 앞을 막는다。

순애는 깜짝 놀라 돌아다보니 머리는 농잎모를 쓰고 한손에 바구니를 든 낚시질꾼이다。 시커먼 수염이 가슴까지 나려오고 얼굴은 달빛에 살펴보니 대단히 눈에익다。

『어디사시는 부인이신데 이게 무슨 경솔한짓이요』

『놓아주십시요 죽어야 할 사정이있어 죽어야 하겠읍니다』

『나무는 다시 살아나되 사람은 한번죽으면 그만입니다。 아까운 청춘을 왜 죽으려하시요 아예 그리마시요』하는 목소리가 매우 낯익은 목소리다。 그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백락관이라

『누구신지 몰으나 말씀이 고맙습니다。 어디사시는 누구신지요』

『네— 나는 어부요 나는 이것을 하여가면서도 살려고 애를쓰는데 왜 귀부인이 죽을길을 찾읍니까 자— 어서 돌아가십시다』

『성씨가 귀십니까? 음성이 매우 익어 그렵니다』

『네— 내성은 백가요 살기를 좋아한데서 이름을 락관이라 하옵죠』

이말에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백선생! 살려주십시요』하였다。 이말에 백락관은 순애인줄 알고

『이게 웬일이요 그간 수일의 소식을 아시요』

『통이 몰읍니다。 백선생께서는 다 아시겠지요 제가 죽일년이올시다』

『흥 그렇겠지요 인제 뉘우친들 후회막급이지요』

『그래서 오늘 죽엄으로써 수일씨께 사죄코저 하였어요 백선생 용서해주서요』

『잘 뉘우쳤소 수일이가 용서를 아니해도 당신은 뉘우친것으로써 스스로 용서를 받음이나 다름없소』

『백선생 용서해주시요 그러고 수일씨를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요』

『만나면 무엇하겠소 서로잊고 마는게 좋지요 자— 밤이 늦어가니 어서 가야하겠읍니다。 어서 돌아가시요』하고 백락관은 낚싯대를 메고 휘죽 휘죽 간다。

× ×

백락관은 그동안 대구 중학교유를 사직하고 평양 숭실대학교수로 영전되어 왔다가 세상일을 부운같이 여기고 사직한후 음풍롱월로 세월을 보내며 낚시질로 소일을 한다。 이날도 술이 얼그니취하여 낚시질 나갔다가 해가저무도록 있는데 천만 의외에 죽으려나온 순애를 살린것이다。 그 죽으려나온 의도가 진심으로 회개한 모양이매 맘속으로 대견이 여기였다。 그해 가을에 서울 이사가서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가지고 이수일을 무르니 최종연의집에 있다 하므로 최종연의 집을 찾아가니 이수일이란 문패가 붙었다。

수일은 최종연 부부가 불에 타죽은 후 그아들 영식이가 아버지의재산은 불의의 수단으로 모은 재산이라하여 전부 수일에게 물려주고 공익사업을 하라하고 그집터에다 새로 집을짓고 그돈으로 자기가 주인이되어 고리대금을 하고있다。

백락관은 문패를 유심히 보고 주인을찾으니 식모 노파가나와서 수일의 외출함을 고하고 저녁때 들어온다 하므로 명함을 내주고 내일 오정때 오겠으니 기대려달라고 이르고갔다。

수일이 저녁에 돌아오니 백락관의 명함을주고 내일온다고 하시드라고 노파가 고한다。

반갑기 측량할수 없어 밤이 어서가기를 기대렸다。 날이밝아 약속한시간이 되였는。 과연 백탁관군이 찾아왔다。

『이게 누군가? 하고 손을 서로잡고 한참동안 말이없다。 두사람의 눈에는 다만 눈물만 글성글성할 뿐이다。 백탁관이 먼저 입을열어

『몇해만인가 죽은줄 알았네 그래 친구는 백년친구라는데 사람이 어찌 그리 매정한가 나는 이때껏 자네소식을 알랴고 애를썼는데 자네는 나를 친구로 안안모양일세 그려』

『할말 없네 용서하게 나는 지금 악마의짓을 하고있는 사람이라 친구니 지기니 생각을했느냐 한들 자네가 신용하겠나 자ㅣ술이나 한잔먹세 내 소식은 자네가 몰라도 자네소식은 나는 신문지상으로 잘아네 우리가 음신은 격조하여도 정신마는 륙년간 교류하였네』

『이 사업이 자네성미에 맞지안는 일인데 그동안 얼마나 정신상 고통을받았나?』

『다ㅡ 운명이지 인제는 아주 악마가 되었데』

『그런데 춘애소식은 아나?』

『그까진 년은 꿈에도 생각안네』

『가위 장부다 계집은 조득모실이라니 그것을 개의하면 남자인가』

『내가 수월전에 입원하였을때 그아비가 문병온 것을 보지않고 보냈네 패패한작자야』

『입원은 어째했든가 병이 중했던가?』

『부끄러운 일일세 이노릇을 하려니까 어느놈에게 얻어맞고 타박상으로 그랬다네』

백탁관은 고개를 끄떡끄떡하고 술 한잔을 마시더니 눈물을 흘리며

『여보게 인제 고만 사람의길로 들어가세 남의피를 뽑는 이장사를 고만두게』

『고마운 말일세 생각해 보겠네』

「깊이 생각해보게 그동안 장가 들었나」
「장가가 무엇인가 나는 독신생활하겠네」
「이렇게 집을 이룩하고 왜 안드나」
「독신생활이 제일좋아」
「공자 말씀이 누가 잘못아니하는 사람이 있으랴고 치면 착한사람 된다고 하셨네 자네가 부정한 고리대금이 인도가 아닌줄 회개하니 인제는 착한 사람일세 나는 무엇보다도 상책하에」
「그런데 자네는 왜 대학교수를 내놓고 노나?」
「나는 부귀를 뜬 구름같이 아네 그러기에 이름이 락관이가 아닌가……하……하……」
「무슨 큰 계획이 있는게지」
「여보게 수일이 나는 오늘 매우 유쾌하에」
「오래간만에 친구 만나니 피차 없네」
「그뿐 아닐세 순애도 회개하고 자네도 회개하니 이런 기쁜일이 어디있나」
「그년이 회개가 무엇인가 개같은 년……!」
「아닐세 정말일세」하고 순애가 자살하려던 것을 구하고 자기 여기까지 찾아온 자초지종을 절절히 말한다。 그러나 수일의 귀에는 하나도 정말같지 않다。
「그까진 개같은 년의 말은 고만 두게 육년전 잊은일을 다시 끄낼필요가 있나」
「아냐 그게 아닐세 제가 사살까지 하려고 뉘우친것은 거짓이없는 증거니 용서하게」
「그까진 년의 이야기는 고만두게」
「아—냐 여보게 마음놀라게」
이 때 문을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서은경이다。 백락관은 서은경을 보드니 이마쌀을 찌푸리고 잠

자코 있다。

서은경은 먼저 수일에게 인사하고 나서 백락관에게 인사하나 백락관은 입을열지

『에서 뵈옵기는 참 의외요 주인과는 매우 친하신 모양이구뇨』

『자네는 어떻게 이냥반을 아나』하고 물으니 백락관은 이러서며

『좀 알지 오래앉았으면 두분일에 방해될 모양이니 고만 가겠네』

은경은 백락관이 가라는것을 보고

『이런데서 여쭙기는 안되었지만……』

『응 그것은 후일 이야기합시다』

『가까운데도 아니고 평양을 늘 갈수도없고 또 편지로 폭촉해도 답장도 안해주시니……』

『무엇 먹데 있어도 도망가지 않을테니 좀 기대리오』

수일은 두사람의 얼굴을 번가라 가며 쳐다보다가 가라는 백락관을 붙들며 저녁먹고 가기를 권하나 백락관은 그대로 나가버린다。백락관을 작별한후 수일은 은경에게 백락관을 어찌 아느냐고 물은즉 삼천원 빗쓴사람이라 한다。그냥반이 빗쓸 사람이 아닌데 정말이냐 물은즉 다른친구가 쓰고 내지못하는 것을 그가 가루맡고 그돈 때문에 학교도 고만두었다 한다。

이말을 듣고 수일은 락관이가 교수 고만둔것을 알고 채권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해도 은경은 육천원을주어도 당신의 돈은 안 받는다 하므로 다시 말을 아니하였다。

× ×

대동강 깊은 물에 풍덩실 몸을던져 죽엄으로 수일에게 사죄하려던 순애는 뜻밖에 백락관의 구호를 입어 자살미수가 되었는데 집에 돌아가고싶은 생각이 손톱끝만치도 없어서 정거장으로 나와 경성행 막차를 타고 자기친정으로 들어가니 심상호 부부는 깜짝 놀라 웬일이냐고 물으나 다만 몸

이 아파왔다고 핑계하고 두려누었다。 순애는 백락관의 말을 들은후로 더욱 마음이 아파 마저죽드라도 수일에게 사죄하고 용서를받을 결심으로 가슴속에 엉킨수심을 한장 편지에 옮겨올렸다。

무심코 순애의편지를 받은 수일은 떨리는 손으로 들고 그편지를 다읽었다。 그사연은 전일 백락관이가 말하던것과 똑같다。『이년이 도까비가 씌웠나』하고 찢어버렸다。 순애는 답장오기를 기대려도 답장이 없으므로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해도 수일은 편지오는데로 보지도않고 아궁이에 넌다

어느날 아침 수일이 늦잠이 들었는데 식모가와서 손님 오셨다고 한다。 누구냐 물은즉 백락관씨래요 하므로 사랑으로 들어앉게 하고 옷을입고 나가본즉 왠 여자하나이 고개를숙이고 앉았다。

『어데 백선생인가? 누구신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한즉 그여자는 간신히 머리를 들고

『저 올시다』 수일은 단박 노기가 충천하여

『응 너로구나 왜왔서』

『수일씨 용서해주서요』

『용서가 무엇이냐 어서가거라』하고 문을닫고 안으로 들어간다。

『수일씨 제말 한마디만 들으십시요』

『할멈! 저 손님 어서가시게 하오』하고 방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쓰고 눕는다。

할멈은 어떤 영문을 모르고 사랑으로 나와

『아마 심사가 편치않아 그러시는 모양이니 후일 또 오시지요』하고 권하니

순애는 눈물을 씻고

『네 인사나 여쭙고 가야지요 어느방에 계신지요』

『안방에 누셨는데요』

순애는 안방으로 찾아와서 문을열고 두려누은 수일에게 엎드려

『한마디만 하고 가려고……수일씨……』

『이게 무슨짓이야』하고 뿌리치고 일어나는 것을 수일의 옷깃을 붙잡고 매달리며 『용서해주서요 응 응』하고 운다。

『에이 귀찮어 놓지못해』

『따려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제말 한마디만 들어주서요』

『듣기싫여 어서 놓고가거라』

이때 마침 서은경이 찾아왔다。

『손님 오셨서 어서 놓아』하니 순애는 잡았던 옷을 시름없이 노며 다녀오시도록 기대리겠다고 하였다。

은경은 사랑에서 기다리다가 안으로 들어오니 마루끝에 여자의 신이 놓여있는지라 수상히 생각하고 방문을 열고 안계신가 하고보니 고흔 여자가 옷묵에 비켜앉았는지라 은경은 질투심이나서 『처음 뵈옵습니다 주인과 일가 되십니까』

순애는 은경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네 일가간입니다』

옷은 일어다。 순애는 은경을 수상하게 여기고 은경은 순애를 수상하게 여기니 육년 전 삼월십오일 밤 대동강변의 장면이 신랑하나에 신부 둘로 바뀌였다。

순애는 한참 기대리다가 수일이가 몸을 피할려고 은경을 들여 보낸것으로 알고 할일없이 돌아갔다。

서은경은 그대로 앉아서 별 생각을 다한다。 저런 고흔계집이 있어 나를 냉대하였구나 이때까지 내가 헛수고했다 하고 고개만 끄떡 끄떡한다。

수일은 밤 늦게들어와 자리에 누니 계집들 등살에 괴로워 못살겠다。 예라 조용한곳에 가서 며칠 휴양이나 하겠다 하고 이튿날 아침에 행장을 수습하고 온양온천으로 향하였다。 온양에 도착하여 청금루라는 여관에 숙소를 정하고 있는데 이웃방에 나이 십칠팔 되어보이는 젊은 남자가 하나 머무는데 행동이 얌전하고 사람이 침착하여 남과 말도 잘 아니하고 날마다 정거장에 드나드는 것이 누구를 기대리는 모양같더니 하로는 젊은녀사 하나를 다리고 온다。 그거동을 보니 여염집은 아니요 말소리가 평양사투리라 그날밤도 수일은 잠이 아니오고 번민이나서 신문관 뒤저거리는데 각방에 불이 다 꺼졌으나 이웃 방에서는 껏던불을 켜놓고 남녀 두사람이 속살거린다。 하도 수상하여 가만히 엿들어본즉

『그래 나올 때 들키지 않았나』

『밥에 나왔는데 누가 아나 오늘은 야단 났겠지요』

『벌써 경찰서에 수색원 제출했을걸』한다。 수일은 『얘 이것봐라 도망군이로구나』하고 가만히 나가 창문 앞에 가서 엿들으니

『천당에 가서 찾으라지요』

『어제도 김중배왔습디가』

『그 부인하고 이혼한 뒤는 밤낮 와 있지요』이말에 수일은 순애가 이혼하고 온것을 알았다。

『그 놈의 자식 옥란의 집을 은행으로 아남』

『그새끼 장창 든 자랑만해 내가 돈만아는줄 아나보아 사랑을 돈주고살려고하니 혼나간 새끼야』

『세상이 그러한 걸 그사람만 욕할것 무엇있소 우리는 이세상에 자미있게 못살으니 저승에가서 잘 살아봅시다』

『한살에 죽으나 열살에 죽으나 죽기는 일반이요』

수일은 이것 큰일났구나 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이 타는데 숨을죽이고 문틈으로 드려다보니 남자는 가방을들고 약병을 끄내드니 컾 들에다 딸아놓고

『자— 하나씩 듭시다。 이것으로 이세상은 청산이요』

이 때 수일은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컾을 발로차고

『잠깐 참으시요』하니 두 남녀는 깜짝놀라 멀거니 앉았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이사람에게 말씀하시요 아까운 청춘을 역지로 업새고저 마시요』

두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이없다。 수일은 입에 춤이말라 한참 가만히 앉았다가

『이사람이 비록 녹녹하나 무슨 사정이든지 피하게 할 도리가 있으니 숨김없이 말씀하시요』하니

그때야 남자가 머리를 들고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못난 년놈의 정사이오니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돈 때문입니다그려 자— 안심를 하시요 돈 갈으면 문제없읍니다』 한즉 그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있다가 입을열어

『저는 평양 물산회사 서기로 있는 최차영이고 저 여자는 기생 옥란인데 저이 두사람은 삼년전부터 관계가 있는데 날이 갈수록 정은 두터워오나 살도리가 없는데 요새와서 김중배라는 부자가 옥란을 작첩하려고 하기에 저의 장래를 위하여 아모쪼록 가서 잘 살라고 권고하였으나 돈과 사랑은 바꿀수 없는 것이라고 못살면 정사라도 하자하여 못난짓을 한것입니다』 이말에 수일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기생에 저런 인물이 있구나 하고

『몸값이 얼마나 되며 돈은 얼마나 가지면 문제가 해결되겠소』

『몸값은 삼천원이고 제가 회사 돈 축낸것이 이천원됩니다』

『그럼 모두 오천원이면 두사람의 생명이 온전할것이로군요 염려마시요』

두사람은 수일의 고마운 후정을 감사하여 백배치사하였다。

그 이튿날 수일은 최차영과 옥란을 다리고 서울로 올라와 두사람을 자기집에 묵게하고 돈을 내었다。 두사람은 수일의 태산같은 은혜를 절실히 느끼고 후생에가서 갚기로 맹서하였다。

죽기로 맹서하고 한번 수일의 집에 찾아왔던 순애는 또다시 편지를 올렸다。 이번에는 무슨 생각으로 그편지를 받아보니 역시 그말이다。 꾸기꾸기 하여 책상밑에 집어넣고 공연히 눈물이 나서 책상우에 머리를대고 있다가 다시 한번 편지를 집어 눈가는대로 중간을 보니 『이 죄많은 년은 죽엄밖에 없읍니다。 죽어도 당신에게 용서를 받고 죽으면 한이 없을가 합니다』 수일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맥없이 앉았는데 최차영이 신문을들고 들어오며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신문에 무슨 자미있는 일났소』

『네— 평양 김중배이야기 났읍니다』

수일은 김중배란 말에 신문을보니 『방탕한 부호의 횡령』이란 제목하에 김중배가 주색에 미쳐 은행 돈을 횡령하였다는 말이났다。 수일은 고개를 끄덕 끄덕하고 속말로 죽일놈이지 하였다。 최차영 부부는 그놈 망한것이 자미가있어서 웃고 욕하고 한다。

× ×

순애는 수일에 몇십번 편지를 하고 답장오기를 기대리나 도무지 답장이없고 고민은 날로 더하여 가끔 헛소리를 하고 미친사람 모양으로 뛰어나간다。

김중배는 순애의 행동이 천거지악에 든다고 정식 이혼을하였다。 순애는 큰 다행으로 여기나 순애부모는 큰 걱정이다。

날이 갈수록 순애의 병은 더하여 대학병원에 입원하니 의사의말이 너무 걱정하다 난병인데 정

신에 이상이 있다고 정신병 환자실에 수용하였다。

순애 어머니는 간호하느라고 병원에 와있고 심상호은 낮이면 종일 와있다가 밤이 되면 돌아간다。

입원후 순애는 하로 몇번씩 머리를 풀어헤치고 『수일씨 살려 주시요』 『수일씨 용서하시요』 『왜 답장이 없소 왜 편지를 안보오』 뛰어나가려 한다。

순애모는 자기 영감을보고

『여보 영감 저애병이 수일로 해서 난 병이니 수일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는게 좋겠소』

『글세 나도 그런줄은 아나 한번 찾아갔을 때도 보지않는데 될수있소』

『참 저— 수일이 친구 백락관이 지금 동대문밖에 와서 산답디다。 그사람을 찾아보고 사정을 이야기해 보시요』

『참 그사람을 찾아보고 부탁해 보는것이 좋겠소』

이때 순애는 또 발광이 나서 『수일씨』하고 뛰어나가려고 한다。 상호 부부와 간호부가 붙드려 간신히 진정시켰다。

× ×

수일이가 최차영 부부 구조한일은 세사람 밖에 알사람이 없는데 어느날 신문에 『이수일씨의 히사』라는 제목하에 굉장히 떠버려 놓았다。 수일이 신문을 보고 최차영을 불러가지고

『이말이 어데서 나왔소』하고 묻는다。

『글세올시다 알사람이 없는데요 밥없는 말이 천리 간다더니 그말이 꼭 옳구료』

『내가 무슨 배명 주의로 이름내자는게 아니고 만 그정상이 가석하여 한일인데 이게 원일이요』

『참 세상 일이란 숨길수 없는 것이 올시다그려』하고 말았다。

최차영은 수일의 은덕으로 살아 서울 온후 그의 가장친한 친구 이용우를 찾아가서 여러해 격조한 사정끝에 자살하려던 것을 이수일이란 사람이 막대한 돈을주어 다시 살게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용우도 감격하여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치사하더니 최차영의 성명을 변성명하여 놓고 이수일의 장한 일을 신문에 낸것이다。

인천있는 최영식은 신문을 보고 기꺼워서 곧 뛰어올라와 수일을찾으니 최차영이 나가 외출하고 없다 하므로 내일 오겠다 하고 돌아갔다。백락관은 춘천갔다 돌아와 신문을 늦게보고 『아 하 인제 수일이가 회개하였구나』하고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찾아왔다。

『여서오게 왜 그렇게 소식이 없었나』

『수일이 고마워』하는 차에 식모가 손님 오셨읍니다 한다。나가보니 최영식이라 이제 세사람이 모였다。수일은 두 사람을 인사시킨다。

『나는 백락관이 올시다』

『네— 그러십니까 수일에게 성화는 많이 들었읍니다。나는 최영식이 올시다』

『네! 말씀 많이 듣고 한번 뵈옵기를 원하였더니 오늘 의외의 일이올시다。언제 올라 오셨읍니까』

『신문보고 치사하려고 여제 왔읍니다』

『나역시 신문을 어제 늦게보고 왔읍니다』

『신문에 이수일이 내가아니라 딴사람이야』하고 수일이 변명하는데 최차영이 문을열고 들어오며

『여러분 실례합니다』하더니

『이선생 그 두분께야 아니라실것 무엇있읍니까 제가 바루 그 당자올시다。 참으로 이선생의 은혜는 백골난망이올시다』백락관이 쑥 나서며

『나는 제일 상쾌하이 자네가 그 마굴에서 영 벗어나지 못할줄 알았더니 인제 사람의 길을 밟으니 감사하에』 최영식이 말을 내어

『수일씨 옳습니다。 인제 정도니하던 일은 다집어 치우고 사회사업을 하시죠』

수일이 한참동안 말이 없더니

『락관이 나는 긴 꿈을 꾸었네』

『그렇지 일장 춘몽일세』

이때 서은경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러사람이 모른체 하니 한구석에 앉아서 눈치만본다。

최영식이 백락관을 보고

『백석생 사회사업에 무엇이 적당 하겠읍니까?』

『장학회를 셔립하는 것이 적당할가 합니다』

네사람은 그것이 옳다하여 이수일의 전재산을 장학금으로 쓰기로하고 회장은 백락관으로 추천하였다。

× ×

심상호는 백락관을 찾아보려고 동대문밖을 나섰으나 남대문입납이지 넓은 동대문 밖 어데임을 알수없어 찾기 쉬운 최종연의 집으로 수일을찾아가니 문패가 이수일이라 붙었는데 차영이 나와 외출하고 없다 하므로 백락관의 집을 물으니 자세히 가르쳐주는지라 그길로 백락관의 집을 찾아가서 락관을 만나보고 이전 잘못을 사과한후 딸애의 병세를 이야기하고 죽어도 한이나 없게 한번만 수일을 만나게하여달라고 애걸한다。 백락관도 심중에 품은것이 있어 당초에 늙은 부모가 잘못이란 말을 접접히하고 자작지얼은 불가 활이라니 자기가 스스로 지은죄를 면할길이 어데 있느냐고 하다가 늙으니의 정상이 하도 딱하여 동정의 마음이 생겨

『수일이는 지금 딴 사람이 되었읍니다。 육년전 옛사람이 다시 되었으니 그러니까 어데 힘을 써 보겠으니 그리 아십시요』

『딴 사람이 되다니 어떻게되었소』

『신문 못보셨습니까 전재산을 사회사업에 내놓고 정의 인도를 다시 밟읍니다』

『그리운 소식이오 그런 마굴에 빠지게 한것도 다 늙은 놈의 죄로생각하오』

『노인장께서도 뉘우치십니까』

『우리 부부도 뉘우치오』

『그런데 김중배하고는 이때 살읍니까?』

『벌써 이혼했지요』

『그것봅시요 돈으로는 사랑을 못사는 것입니다』

『허허 그저 이 늙은것이 잘못하였으니 노형도 많이 용서하고 수일을 권고하여 한번 만나게 하여주기를 바라오』

『네ㅡ 어서 돌아가십시요』

백락관의 승락이 떨어지니 심상호는 치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마굴에서 악몽을 깬 수일은 단연 고리대금업을 집어치우고 차용증서를 본인에게 돌려주니 칭찬이 자자하다。 백락관이 서은경에게 돌리던 빚 삼천원은 백락관을 주고 갚으라면 그 결백한 성미에 받지 않겠으므로 최차역을 평양으로 보내어 이전 채무자를 불러다가 락관이 모르게 주고 전재산은 거의 장학회에 기부하였다。

백락관은 심상호가 다녀간 후 수일후 조용한 틈을타서 수일을 찾아보고 심상호가 찾아와서 이전일을 회개하고 늙은이가 울며 딸의 사정을 간곡히 말하는것이 매우 측은하니 순애를 용서하여

주라고 간곡히 권고하니 수일은 잠자고 한참 듣고있더니
『글세 내가 용서는 하지 그러나 이제 용서한들 순애가 다시 육년전 순애가 될수는 없는게 아닌가』
『천만에 개지위선이라니 자네도 오늘 육년전 수일이 되어 명성이 사해에 자자하지 않은가? 순사다마요 일시풍파니 악몽을 깨치게 물각유주야 순애는 김중배의 것이 아니라 자네것일세 이혼까지 하였다니 그렇지않은가』
『락관이 참 꿈 같에 고련 매정한계집이 어데있어……』
『여보게 대장부가 그까짓것 귀중품 도적 마졌다가 다시 찾아 온셈만 잡게그려……하……하』
『자네는 참 호걸일세 나는 졸장부라 그런생각이 못나네그려』
『이전의 잘 잘못은 고만두고 사람이 미치게 될때 여간하여 그렇겠나 어서 마음을 돌리게 어느날 가보세나 이것도 작선일세』
『글세? 어데 틀나든대로 가세그려』
『하……하……하 고마운입입세 그럼 일간 또 오겠네』하고 락관은 일어난다. 수일은 문밖까지 전송하고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하니 모든일이 웃읍다 그러나 내가 오늘날 이름이 사해에 빛나게 된것은 순애의 덕이다 순애는 나의 은인이다 내가 찾아보고 살려야 하늘이 복을 주리라고 이튿날 아침에 백락관의 집을 찾아가서 순애를보려 대학병원으로 갔다.
정신병자 수용실인 동팔호실을 방도하니 심상호가 마침 나와 기쁨에 넘치는 눈물을 흘리며 수일의 손을 잡고 말이없다. 수일은 위로하는 말로
『고정하십시오 모든것이 꿈이올시다』
『이렇게 와주니 고맙다。 수일아 용서해라 락관씨 너무 감사하오』

『그런 말씀은 다 나중하시고 어서 들어가시지요 대관절 요새는 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지금은 좀 진정 되었으니 들어갑시다』

세사람이 병실로 들어가니 순애 어머니는 순애의 흐트러진 머리를 쓰다듬고 풀어진 옷가슴을 염려주는데 하얀 젖태우에 밀거니 앉았는 순애의 모양은 오래동안의 고민으로 뼈만 앙상한것이 귀신같다。 이것이 육년전에 한번 웃으면 보는사람의 간장을 녹이던 순애이던가 하였다。

수일이나 탁관이나 다 가치 눈물을 흘리며 말이없이 순애의 얼굴을 드려다 볼뿐이다。 순애를 드려다보며

『순애씨 나를 알아보겠소 나는 백락관이요 수일이 다리고 왔으니 보시요 당신이 기다리던 수일이 왔소』

순애는 그대로 멀거니 정신잃고 앉았다。 순애모가 옆에서

『이애 수일이 왔다。 응 밤낮 찾고 부르던 수일이왔서』

수일은 그정상이 하도 불상하여 속마음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여보 순애 나왔소 수일이 왔서』하고 손을 잡으나 아모 감각이 없이 멀거니 있다。 별안간 벌떡 이러나더니 『수일씨』하고 뛰어나가려 한다。 수일은 그모양을 보고 순애에게로 달려가서 손을잡고

『순애 수일이 여기있소 내가 수일이요』하니 얼굴 빛이 차차 붉어지며 맑은정신이 들더니 수일의 손을 꽉쥐고

『아— 수일씨 용서……』하고 운다。 수일도 울며

『응 용서하지 모든일을 청산합시다』

육년동안 긴 세월 가슴을 태우고 원하던 일은 성취되어 락화가 다시 가지에붙었다。

수일은 그후 매일 문병을간다。 순애의 병은 나날이 차도가있어 의사도 흥이 난다。 한달이 지나

때 의사의 말이 병은 다났으니 퇴원하고 바다가로 요양을 보내라 한다。심상호부부는 수일과 의론하고 마산 해안으로 요양가기로 결정하였다。퇴원하는 날 수일은 자동차로 순애를 태워가지고 자기집으로 다리고 왔다。순애의 마음은 더욱 기뻤다。하로 밤 쉬고 이튿날 그어머니와 함께 마산으로 전지 요양을 보내고 수일은 며칠후에 뒤 쫓아갔다。

여관 창문을 여러제치고 수일과 순애는 망망한 창해를 바라보다가 각구지회가 간절하여 바다가로 나갔다。

『세상이 고해라더니 정말 저바다 같이 거츨구려 우리의 반생중에도 육년 동안의 풍파란 귀신의 작난갈지 않소……』

『네— 참 그래요』

『순애 큰바람 지난뒤에 쓸쓸하지만 미구의 꽃이핀다오 우리의 앞길은 꽃이 필것이요』

『네— 작히나 좋읍니까』

『자— 인제 고만 돌아갑시다』

『어데로요 서울로요』

『아—니 여관으로 당신은 서울로 가고싶소』

『아—뇨 여기 더있다 가고싶어요』하고 머리를 수일의 가슴에 폭 파묻는다。

해가저므리 달이 동령에 소스니 물새는 잠들고 두사람의 정화는 더욱 깊어간다。

마산서 한달 머무르는 동안에 순애의 병은 쾌복되어 완인이 되었으므로 서울로 돌아왔다。그소문을 들은 백락관과 최차영 부부와 순애 부모는 경성역에 나와 영접한다。정거장에서 자동차를 타려고 하는데 수일은 건너편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 하나를 발견하였다。그여자는 서은경이다。은경은 수일을 바라보고 웃으며 인사를하는데 그래도는 샘내는 것같다。락관이 그것을

보고 이리로 오라고 손짓을하나 은경은 웃고 고개를 흔든다。 자동차 한대에 수일과 순애와 심상호부부를 태워 먼저 보내고 락관은 은경을불러 할말이 있으니 가치타자고 하여 최차영부부와 네 사람이 한차에 탔다。

은경은 사양타가 마지못하여 가치타고 오면서 락관을 향하여

『인제 그냥받이 쾌복 되셨나요』

『네—. 다났서요』

『퍽 자미있어 보입니다』이 말은 의미있는 말이다。 자기가 이때까지 수일에게 구박을 받아가며 바친 사랑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말이다。

『세상에 그것이 락이지요』

『제게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동업자던 수일은 일조에 그 부정사업을 집어치우고 참된 사람이 되었소 당신도 그 영업을 고만두시요 나는 당신을 위하여 권고합니다』

『그렇게 일러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원체 매혹해서……』

『잘 생각해 보시요 그러고 여자로서 당신같은 천분을 가진이는 조선안에서 일하기가 범위가 좁습니다 그힘을 조선안에서 다 펼수가 없단말이요 그러니 여자의 권리많은 서양가서 활동해 보는것이 좋을것같소 불란서 같은데가서 여자의 특유한점을 발휘하여 파리 녀자들을 놀래주시요』

『글세요 나도 한번 서양가서 외국녀자들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동안에 자동차는 순애의 집 앞에 당도하였다。 은경은『고맙읍니다 저는 다른데로 가겠읍니다 하고 차에서 내려갔다。

심상호의 집안은 재봄이 왔다。 웃음바다와 꽃동산이 되었다。 상호는 수일이가 자기집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므로 수일은 모든 일을 다 정리하고 결혼은 가을에 하기로 정한후 최차영에게는 조고마한 상점을 내어주었다。

장학회의 사업으로는 인재양성의 목적으로 백락관을 서양으로 양험 시켜 널리 지식을 해외에 구하여 우리나라에 큰공헌이 있도록 하였다。 처음 백락관은 자기가 양행갈자격이 없다고 사양하였으나 최영식도 찬성하고 수일도 나라를 위하여 가달라고 갑곡히 권하므로 마지못하여 가게되었다。 백락관이 떠나는 날 경성역에는 그를 전송하기위하여 이수일 순애 심상호부부 최차영부부 최영식 그외에 락관의 친척 사회유지들이 나왔다。 수일은 락관의손을 잡고

『아모조록 보중하게 그러고 선진문명국의 많은 신 지식을 얻어가지고 오게』

『책임은 무거우나 다만 성심성의로 하겠네 인제 자네는 행복의날을 기다릴것일세 결혼을 보지 못하게 되니 섭섭하에 마음속으로 축하합세』

『고마웨 사고무친한 나로서 그날 자네 없는것이 여간 섭섭지않으나 공적일에 사를 돌볼수있나』

순애는 허리를 굽혀 읍하며

『원로에 안녕히 다녀 오십시요』

『네— 모든 폭풍우는 다 지나가고 인제는 운권청천에 행복만이 있을뿐이니 부디 보중하시요』

백락관은 다시 순애 부친앞에 가서

『노인장께서는 인제부터 수일이가 사위겸 아들이니 많이 사랑하십시요』

『부디 보중하시요 우리 내외는 저만 믿지요』

기타 여러 손님에게 일일히 고별하고 차에 올랐다。 기적소리 한마디에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양장한 여자가

『수일씨 안녕히 계십시요』하고 차를 탄다。 자세보니 서은경이라

『당신은 어데가오』 한즉 나도 불란서 간다고 한다。 더 이야기할 새 없이 차가 떠나니 모자를 벗어 흔들었다。

기차가 떠난후 정거장 앞으로 나와 다 각각 자기집으로 돌아가는데 수일과 순애는 나란히 서서 오며 자미가 깨가 쏟아지게 속살거린다。

『모두 저렇게 희망을 품고 떠나는구나』

『우리도 큰 희망을 품고 있지않어요』

『그렇지 우리도 큰 희망을 품고 있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다 저렇게 우리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지않소』

『그러니까 저도 그이들의 감사한 뜻을 보답하려고 해요』

『순애 우리는 아즉 젊소 우리의 앞길에는 굴곡이 많겠지만도 우리는 과거에 다른사람이 맛보지 못한 쓰라린 경험을 맛보았스니까 어떠한일이든지 겁나지 않소』

『그러무뇨 그러기에 초년 고생은 금을주고 산다지 안해요』

두사람은 다른 사람이 뒤에 오는것도 잊어버리고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걸어간다。

—끝—

長恨夢 장한몽 終

世昌書館新刊圖書案內

實業에 大成功을 하시려면 (資本金 壹萬圓)만 가지고 重要한 大市場에서 小賣商人에게 直接 都賣, 小賣도 할수 있읍니다. 此好期에는 先覺者가 大成功합니다. 韓國에서 第一 갈잘리는 冊은 이 目錄에 있는 冊입니다. (希望하시는 冊을 冊名만 記入하십시요).

單方秘要經驗新書 百方吉凶寶鑑 吉凶判斷作名秘訣 ₹00 ₹00 ₹00

國漢文新玉編 國漢文新玉編 漢文新玉編 ₹000 ₹000 ₹000

百方家庭要寶鑑 一見能解唐詩周易 四柱自解月影圖 ₹000 ₹000 ₹000

금전 강욱 춘 남녀 연애 정응 ₹00 ₹00 ₹00

그 외 각종 신구 소설 ₹00 ₹00 ₹00

檀紀四二八九年一月一日 檀紀四二八九年一月三十日 發行 印刷

請求 8/1.31
番號 人多ㅅ 入

登錄
番號

著者名 申 采 三

書名 長恨夢

所屬	帶出者姓名	貸出日	返納豫定日	返納日



請求番號

登錄番號

著者

書名

國會圖書館

用便으로 番號 ₹00 社 ₹00 ₹00 番號 番號 ₹00 ₹00 ₹00

448

古代小說(고대소설)

11.31
1950